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가)는 발표 지도에 대한 교사 간의 대화이고, (나)는 준비된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교사 A: 주제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를 하는 수행 과제를 준 후 발표를 시켰더니, 학생이 청중을 보지도 않고 발표문만 보며 그대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 발표를 듣는 학생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 학생의 발표 능력 신장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교사 B: 미리 작성한 발표문이나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것을 암기해서 청중 반응과 상관없이 줄줄 읊어대는 식의 수행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C: 그러면 학생에게 (㉠)을/를 작성하게 한 후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며 연습을 하게 해 보세요. 이것에 기초해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같은 내용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게 되어, 실전에서도 발표문을 읽지 않고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구어 의사소통에는 사전 준비 없이 하는 '즉흥적 말하기'와 말할 내용에 대하여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준비된 말하기'가 있다. 준비된 말하기를 수행할 때 발표문을 보고 그대로 읽어서는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기 어렵다. 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넘어 (㉡)을/를 통해 역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청중의 반응에 따라 말할 내용과 방법을 조절해 가며 역동적으로 의미를 주고받는 것은, 청중의 반응을 무시한 채 준비된 발표문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다르다.

2. <보기>는 다음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음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시속 오십 몇 킬로라는 특급 차창 밖에는, 다리섬을 할 만한 정거장도 역시 흘러갈 뿐이었다. 산, 들, 강, 작은 동리, 전선주, 꽤 길게 평행한 신작로의 행인과 소와 말.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풍수로는, 우리가 지나친, 공간과 시간 저편 뒤에 가로막힌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것들은, 캔버스 위의 한 터치 또 한 터치 오일같이 거기 부딪혀서 농후한 한 폭 그림이 될 것이나 아닐까? 고 나는 그러한 망상의 그림을 눈앞에 그리며 흘러갔다. 간혹 맞은편 플랫폼에, 부풀 듯이 사람을 가득 실은 열차가 서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시하고 걸핏걸핏 지나치고 마는 이 창 밖의 그것들은, 비질 자국 새로운 플랫폼이나 정연히 빛나는 궤도나 다 흐트러진 폐허 같고, 방금 브레이크되고 남은 관성과 새 정력으로 피스톤이 들먹거리는 차체도 폐물 같고, 그러한 차창에 빈틈없이 나붙은 얼굴까지도 어중이떠중이 몽친 조난자같이 보이는 것이고, 그 역시 내가 지나친 공간 시간 저편 뒤에 가로막힌 캔버스 위에 한 터치로 붙어 버릴 것같이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은 무슨 대단하다거나 신기로운 관찰은 물론 아니요, 멀리 또는 오래 고향을 떠나는 길도 아니라 슬픈 착각이랄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영전이 되었거나, 무슨 사업열에 들떴거나 어떤 희망에 팽창하여 호기와 우월감으로 모든 것을 연민시하려 드는 것도 아니다. 정말 그도 저도 될 턱이 없는 내 위인이요 처지의 생각이라 창연하다기에는 너무 실었고, 그렇다고 그리 유쾌하달 것도 없는 이런 망상을 무엇이라 명목을 지을 수 없어, 혹시, 스피드가 간질여 주는 스티일이라는 것인가고 생각하면 그럴듯도 한 것이다.

- 최명익, 「심문」 -

<보 기>

속도는 모더니티의 핵심이다. 이 변화의 속도는 익숙하던 것을 불시에 먼 과거의 것으로 만든다. 최명익은 이러한 속도의 작용에 따른 당대의 정황을 인상적으로 드러낸다. 가령 「심문」에서 (㉠)은/는 돌이킬 수 없는 속도의 객관적 상관물로 설정된다. 일말의 주저나 두려움 없이 질주하는 속도는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저편으로 흘러가게 하여 낯은 것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편승한 사람들조차 상대적 속도에 뒤쳐진 채 (㉡)와/과 같은 처지에 내몰린다면 어떻게 될까? 작가는 이러한 의문 속에 새로운 문명의 질주가 종내 파국에 이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드러낼 채비를 한다.

3. 다음을 읽고 <보기>의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2점]

(가)

생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놔습니다.

생원: 이놈, 뭐야!

... (중략) ...

㉠ 양반들: (새처 안에 앉는다.)

말뚝이: 쉬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쌤님 새처 방이 어떻습니까?

생원: 참 좋다.

말뚝이: 만복이 들어오라고 사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생원: 야 이놈, 문을 열어야 복이 들어오느냐?

말뚝이: 예, 그렇습니다. '개문이 만복래'라 문을 열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 들어오면 소인이 잡을라고 하니 쌤님도 잡으시오.

양반들: (일어서려고 한다.)

말뚝이: 가만히 계시오. 소인이 복 들어왔다고 할 때 일어나 잡으시오.

말뚝이: 복 들어왔소!

양반들: (일어나서 복을 잡으려고 두 손을 벌려 들고 사방으로 돌아다닌다.)

말뚝이: (이때 "복이야 복이야" 소리치며 채찍으로 양반들을 때린다.)

양반들: (쫓기며 퇴장한다.)

- 제6과장 양반춤, 「봉산탈춤」 -

(나)

평양 감사: 너희 고을 풍속이 사냥을 하면 강계포수(江界砲手)가 일등이라니 불일내(不日內)로 대령시켜라.

관속: 네, 일변(一邊) 노문 놓아 대령하겠습니다.

(포장(布帳) 가로 빙빙 돌아다닌다.)

어, 길도 참 험하다. 별안간 사냥은 한다고 남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관속인지 막걸린지 그만두어야지 이놈의 팔자는 심부름만 하고 오십 평생을 보내니 화가 나서 못 살겠군.

... (중략) ...

포수: 그럼 무엇이란 말이냐?

관속: 감사께서 도입 후에 이 고을 백성을 잘 다스릴 생각은 꿈에도 않고 대변에 평사냥이다.

포수: 평양 감사인지 모기 잡는 망사인지 그래 도입하면서 평사냥 먼저 한다니, 오는 놈 족족 그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무슨 큰일이란 말이냐?

관속: 평을 못 잡으면 네 목이 간다 봐라. 그러니까 큰일이지 무엇이냐?

포수: 이것 잘못 걸렸구나.

(관속이 일등 포수와 사냥 잘하는 매를 불러 온 후 감사에게 아뢴다.)

관속: 아뢰어라. 여쭙어라. 안존 분부대로 강계 일등 포수와 산진이·수진이·날진이·해동 참보라매 다 대령했습니다.

- 제6막 매사냥, 「꼭두각시놀음」 -

<보 기>

민속극에서 비판과 풍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면이나 인형을 사용하여 가장(假裝)을 하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의 명칭은 각 장면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특히 (가)에서 인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로 지칭하는 것은 작품의 주제 면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대 배경이 바뀌지 않는 민속극의 특성상 극중 장소는 대사나 몸짓, 소도구 등을 통해 나타낸다. (나)에서도 ㉡장면의 전환이 대사나 동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다음은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학생: 선생님, '늙다'는 왜 형용사가 아닌가요?

교사: 아, '늙다'가 형용사라고 생각했나 보군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 볼래요?

학생: 네, 의미 면에서 '늙다'는 '태어난 지 오래되어 나이가 많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서요. 영어의 'old' 역시 형용사잖아요.

교사: 아,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런데 국어의 단어들을 품사로 구분하고 분류할 때는 '의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국어에서는 단어의 (㉠)을/를 중요하게 고려해요. 이런 점 때문에 단어가 활용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국어의 품사를 가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의 양상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만일 (㉡)을/를 '늙다'의 현재 관형사형으로 보면 '늙다'를 형용사라 하겠지만, 그건 과거 관형사형이기 때문에 '늙다'를 형용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5. (가), (나)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봉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몸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 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 노움.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 노움, 이 노움.”

…(중략)…

다시 포성이 가까워지고 그들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앉으나 서나 그들이 곱게 물러가기만을 축수했다.

“그저 내 지식 해코지만 마소서. 불쌍한 내 지식 해코지만 마소서.”
 마침내 보위 군관이 작별하러 왔다. 그의 작별 방법은 특이했다.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들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대로 대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 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겨누며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이 노움 너도 사람이냐? 이 노움.”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짐승 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획 뿌리쳤다.

“이래도 이래도 바른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밖에 못 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쏘 댔다.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러쳤다.

“죽기 전에 바른말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 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 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

(나)

트라우마(Trauma)는 충격적인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 층위에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계기에 ㉡부적응 행위를 촉발하는 기제이다. 이는 악몽이나 환각 또는 강박적인 상태에서, 정신적 외상에 관여된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생시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작성 방법>

- (가)에서 ‘나’가 ㉠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나)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
- (나)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에서 2가지 찾아 서술하고, 그 공통된 의미를 (나)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6. (가)와 (나)는 비판적 읽기 수업에서 사용된 읽기 자료와 교수·학습 자료이고, (다)는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하시오. [4점]

(가) 읽기 자료

인문학은 왜 필요한가

현대화의 필수 요건인 첨단 과학과 기술은 어떤 점에서 인간성의 상실을 야기하는 것인가? 우선 검증 가능한 진리를 얻기 위해 실험을 반복하는 자연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개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자연 과학은 계산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 만약 연구자의 개성과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한다면, 실험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역사적 배경을 포기하기를 강요하는 자연 과학적 태도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인간은 점점 더 개성 있는 인격에서, 교체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만약 전통적 세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대체되는 것이 현대화라고 한다면, 현대화는 필연적으로 획일화와 표준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연 과학으로 인해 훼손된 삶은 보상을 요구하며, 이러한 보상의 문화적 제도가 바로 인문학이다. 자연 과학의 기술 문명에 의한 삶의 훼손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우리의 삶이 엮어 내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합리화를 강요하는 현대화로 훼손된다. 사회는 합리성, 객관성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구체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 계몽되고 미신을 타파하는 탈(脫)마법화의 과정을 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신화와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기술 문명에 의한 두 번째 훼손은 인간의 자연성 상실이다. 우리의 세계는 점차 자연적인 환경을 상실하고 인공 세계로 변하고 있다. 그 어떤 시대도 현대만큼 자연 세계를 파괴하지 않았지만, 현대처럼 자연 세계를 보존한 시대도 없다. 이처럼 현대화는 보존할 만한 가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함으로써 인문학을 더욱더 불가피하게 만든다.

끝으로 현대화는 전통의 의미를 박탈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방향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개발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에 관한 성찰과 규범적 방향을 요구한다.

우리가 빈곤과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연 과학과 기술이라고 한다면, 현대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간성 상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인문학이다. 우리 사회가 과학과 기술로 현대화되면 될수록 인문학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 교수·학습 자료

활동 1 다음 표를 활용하여 '인문학은 왜 필요한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현대화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과학, 자연 과학 기술의 발전 _____ _____
---------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삶이 엮어 내는 이야기 훼손 _____ _____
-------	---

인문학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회복 _____ _____
---------	---

활동 2 글쓴이의 주장을 '문제 - 해결 방안' 방식으로 작성해 봅시다.

• _____ ㉠

(다) 학생들의 대화 내용

학생 A: 나는 글을 읽으면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너희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해.

학생 B: 나는 현대화 방향을 '획일화'와 '표준화'로 설명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어.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삶의 보편성과 다양성이 존재하잖아. 그렇다면 현대화의 방향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까?

학생 C: 글쓴이는 인문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글에서 이런 주장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는 의도라고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필자가 한쪽 관점으로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해.

학생 A: 너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 나는 필자의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A]

<작성 방법>

- (가)와 (나)를 바탕으로, ㉠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활동 1**이 읽기 전략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서술할 것.
- (다)의 [A]에서 학생 B, 학생 C가 사용한 비판적 읽기의 준거를 쓰고, 각 준거에 대해 설명할 것.

7. (가)는 국어 교과서 단원의 일부이고, (나)는 교사가 교과서 재구성을 위해 단원을 분석한 내용이다. 국어 교과서 재구성 방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학습 목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학습 활동

1. 쓰기 목적, 주제, 예상 독자에 대해 알아보자.

- 쓰기 목적: 정보 전달
- 쓰기 주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
- 예상 독자: 같은 반 친구

2. 다음 항목에 따라 독자를 분석해 보자.

분석 항목	분석 요소	분석 결과
요구	○ 독자가 내 글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태도	○ 독자는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3. 브레인스토밍 전략을 사용하여 쓸 내용을 마련해 보자.

4. 3에서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조직 전략을 사용하여 쓸 내용을 정리해 보자.

5. 1~4의 활동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 보자.

제 목 : _____

(나)

① 독자 분석 항목으로 요구, 태도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과 범위를 판단하고 독자의 지속적 읽기를 유인하는 효과적인 글쓰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독자 분석 항목 외에 2가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정 중심 접근법에 근거하여 단원을 잘 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 쓰기 전략의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하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한 것도 의미가 있다.

㉠ 그러나 학습 활동 4의 경우, 학생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 이양 원리에 따라 교사가 먼저 몇 가지 내용 조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이 이 전략을 적용하여 내용을 조직하도록 해야겠다.

<작성 방법>

- (나)의 ①에 근거하여 ‘학습 활동 2’의 독자 분석표에 추가해야 할 분석 항목 2가지와 각각에 해당하는 분석 요소를 1가지씩 서술할 것.
- (나)의 ㉠에서 교사가 상정하고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쓰고, 쓸 내용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3가지 서술할 것.

8. 다음 (1), (2)는 15세기 국어 자료이고, (3)은 현대 국어 자료이다. 15세기 국어에서 용언 어간의 활용과 이후의 변화를 탐구하여 그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1) 즐겁고 <月釋 21 : 6b>, 즐겁더니 <月釋 21 : 207a>, 즐거버 <月釋 4 : 58b>, 즐거보며 <月釋 1 : 35b>
- (2) 잡고 <月釋 20 : 37a>, 잡더니 <月釋 25 : 92b>, 자바 <杜詩 6 : 25a>, 자보며 <杜詩 14 : 19b>
- (3) 즐겁고, 즐겁더니, 즐거워, 즐거우며

<작성 방법>

- (1)에서 어간의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 상정할 수 있는 2가지 교체 양상을 쓰고, 2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설명적 타당성이 높은지 (2)를 고려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것(단, 교체는 ‘무엇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으로’의 형식으로 쓸 것).
- (1) > (3)에 일어난 음운 변화를 쓰고, 현대 국어 자음 체계를 고려할 때 (3)의 어간을 /즐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이유를 15세기 국어 자음 체계와 비교하여 설명할 것.

9. 다음은 '고전 시가의 전승 및 창작 과정의 문학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자료이다. (가)~(다)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ㄱ렸는고
㉠ 강호(江湖)애 월백(月白)허거든 더욱 무심(無心)허애라
<제2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라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취(醉)허야 누언다가 여흘 아래 느리려다
비 미여라 비 미여라
낙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갓갓도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세홍진(人世紅塵)이 언제나 ㄱ렸는니
<춘사 제8수>

창주오도(滄洲吾道)를 네브터 널런더라
달 디여라 달 디여라
칠리(七里)여흘 양피(羊皮) 옷슨 괴 언더허니런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삼천육백(三千六百) 낙시질은 손고븐 제 엇디턴고
<동사 제9수>
- 윤선도, 「어부사시사」 -

(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 「어부사(漁父詞)」가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지은 것인지는 모르나, 고시(古詩)를 채집하여 가락을 붙인 것이다. 이를 읊으면 강바람과 해우(海雨)가 치아와 뺨 사이에 생겨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게 하는 뜻이 있게 한다. 이리므로 농암 이현보 선생이 좋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퇴계 이황 선생도 끊임없이 감탄하며 완상하였다.

그러나 음향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언어가 심히 완비되지 않았다. 대개 옛것을 채집함에 장애를 받음으로 하여 움츠러지는 부족함을 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뜻을 부연하여 우리말을 사용하여 「어부사시사」 각 1편 10장을 지었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발문」 -

<작성 방법>

- (가)의 ㉠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쓰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서술할 것.
- (다)의 ㉡을 (나)의 작가가 공감적,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때, (다)를 참고하여 (나)에 나타난 공감적, 비판적 수용 양상을 (나)의 구절을 활용하여 각각 서술할 것.

10. <자료>의 단어들은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로서, 'X-이' 형식으로 분석된다. 'X'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 료>

겹겹이, 곧이, 길이, 날날이, 느긋이, 더욱이, 뚜렷이, 일찍이

<작성 방법>

- <자료>의 모든 단어에 대하여 'X'를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4부류로 나누고, 그 공통점을 각각 쓸 것.

11. 다음은 음소 / ㅁ / (/ŋ/) , / ㅎ / (/h/)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다. / ㅁ / 과 / ㅎ / 는 상보적 분포를 이룸에도 각각 음소이다. 그 이유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4점]

- (1) 땅[땅], 땅도[땅도]
- (2) 밀알[미랄], 잠옷[자몐]
- (3) 닿다[다타], 닿으니[다으니]

<작성 방법>

- (2)에서 'ㅇ'이 음가가 없음을 (2)를 통해 설명할 것.
- 표면형에서 /ㅎ/가 종성에 실현되지 못함을 (3)을 통해 설명할 것.
- /ㅁ/, /ㅎ/를 음소로 판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예를 각각 제시할 것.

12. (가), (나)를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시의 심상에 대해 이해한 바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보기>

심상은 언어를 통해 주어진 감각 정보가 마음속에 그려 놓은 형상들이다. 시의 심상은 단순히 어휘 하나에 따라오는 효과가 아니다. 의미 있는 심상은 시행과 시 전체의 효과로 만들어진다. 심상은 일차적으로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 인간의 지각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또한 시적 표현을 통해 ㉠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심상이 형성되기도 한다.

시적 심상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대상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언어가 재현하는 대상에 대한 심상은 시적 상상과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불러온다. 가령, (나)의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은 단순히 얼굴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얼굴은 화자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며, 어제 버스에 탔던 사람들의 (㉡)와/과 (㉢)이가 만들어 낸 흔적으로 이들의 삶을 가시화한다. 나아가 이 얼굴은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만나지 못하는 친구의 얼굴까지도 떠올리게 한다.

<작성 방법>

- <보기>의 ㉠의 예를 (가)에서 찾아 쓰고, 그 심상이 가시화하는 의미를 서술할 것.
-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나)에서 찾고, 이를 활용하여 ‘성에꽃’의 의미를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